



최 충 집 이사
(주)마니커 전략기획실
축산기획
choicome@chollian.net

아들의 전역과 치킨파티

2005년 2월 14일 논산훈련소로 머리 깎고 입대했던 아들이 벌써 2년이 지나서 전역을 한다고 한다.

“머리 깎고 군에 갈 때는 언제 제대할거냐고 걱정했었는데, 벌써 제대라니! 쫄병 시절엔 적응이 잘 안돼서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군 생활을 잘 마무리했구나.”

면회를 가거나, 휴가를 나와 두 달에 한번 정도 얼굴은 계속 봤지만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의 전역은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었다.

2007년 2월 13일. 아들의 전역일자를 계산 해오던 아내가 2월 9일 저녁에 하는 말,

“무슨 이벤트를 할까? 아들 제대하는 날!”

“이벤트라, 아들 기억에 많이 남도록 행사를 준비해야겠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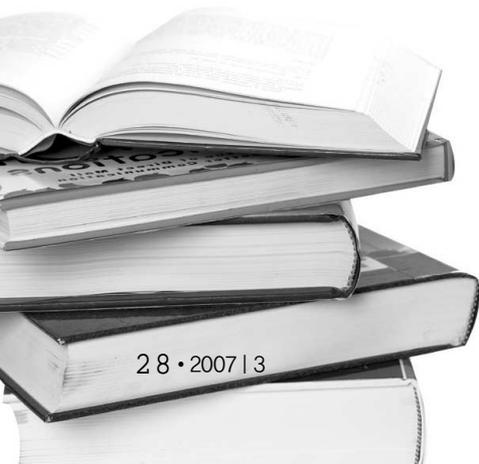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자 말을 꺼내는 아내에게 조금은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

“밥부터 먹고 생각해 봅시다. 내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니까!”

회사의 바쁜 일정에 피곤했던 나는 식사를 하고 나선 더 이상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아내는 아들(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 안전하게 살기 때문에 휴가를 나오면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주변 사람에게 하곤 했었다. 이 엉뚱한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의 전역예정일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휴가 나올 때 경축 태극기를 달아 놓아야 한단 말씀. 2007년 2월 13일 제대하니까 그 이후론 안 걸 어 놔도 되고!”





2007년 2월 10일 토요일. 회사에 출근했던 나는 점심 무렵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오늘 퇴근 할 때 풍선 좀 사와!”

“웬 풍선? 학교 다니는 어린애도 없는데!”

“이벤트 준비하게~, 아들 전역 기념 이벤트!, 그리고 TV에서 또 조류인플루엔자 보도가 나오네, 마스크는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러나 몰라.”

“조류인플루엔자 보도 때문에 지금 조금 바쁜데, 상황 정리되면 다시 전화할게.”

그러나 상황 파악에 바빴던 나는 저녁 퇴근 무렵에야 집에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자기야! 풍선은 샀고, 케이크는 들어올 때 사와!”

“아니 벌써 풍선을 사왔어?”

“케이크는 미리 사두면 맛이 없어지니까 화요일에 준비하지 뭐~”

난 이렇게 말하곤 퇴근길에 올랐다. 운전을 하고 오는데 또 다시 온 아내의 전화.

“음식은 뭘 준비할까? 맛있어 하는 음식을 준비해야 할 텐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요일 마트에 같이 가서 준비하자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아들의 제대를 기다리는 엄마의 조금 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남들이 유난스럽다고 하는 아내의 아들 사랑이 군대에 있는 아들만큼이나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게 했나보다.

집에 도착한 나는 거실에 커다랗게 부풀어 매달려 있는 많은 풍선을 보았다.

“많이도 불러 놨네! 힘은 안 들었고?”

“폐활량 짱이잖아. 내가!”

수영을 오랫동안 해왔던 아내는 풍선 불기가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표정이다.

“그래도 자기 불거 3개 남겨놔어!”

거실의 커튼 지지 봉에 매달려 있는 풍선은 17개, 총 20개를 만든단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불어야지, 아들 전역 축하 이벤트데!”

힘차게 3개의 풍선을 불고 실로 묶어서 커튼 지지 봉에 나란히 매달았다.

풍선을 매달다가 옆으로 보니 함께 걸려 있는 종이 플랜카드엔,

“사랑하는 아들” “장하다”

2월 11일 일요일 오후 마트로 장을 같이 보러 나간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찾는 일을 마치 소풍 나온 어린아이의 보물찾기 놀이처럼 신나했다.

“그렇게 좋아? 아들 제대하는 거?”

“그럼 좋고 말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많이 해서 먹여야지!”

그날의 쇼핑은 온통 아들이 좋아한다는 음식 재료를 사는 것으로 끝이 났다.

“아들은 행복하겠네.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다 해 줄 테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 하니 다행이네.”

마음이 온통 아들에게만 가있는 아내에게 조금은 질투가 나서 괜한 소릴 한 번 해본다.

일요일 저녁 아들한테 온 반가운 전화.

“2월 13일 뵙겠습니다!”

일요일 가끔은 집에 전화를 해왔지만 이날의 전화는 더욱 반가운 전화였다.

2월 13일 화요일 오후. 아들이 집에 도착을 했다고 전화를 해왔다.

“조류인플루엔자 보도를 봤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좀 어떠신가요?”

아들을 항상 어리게만 보아왔는데, 이제는 마음 씀씀이도 어른스럽다.

“아들, 먹고 싶은 게 뭐야?”

“글쎄요~ 오늘은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집에 들어 갈 때 치킨 주문해 놓고 갈게!”

아들 전화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저녁무렵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오늘은 집에 일찍 올 거지?”

“그럼, 아들이 제대했는데 일찍 가야지! 케이크 사가지고!”

“별써 아들이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어! 그냥 들어 오세요!”

“아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했는데, 주문을 할까?”

“치킨도 지금 주문했어, 서방님은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럼 바로 출발하리다!”

집에 오는 내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 줄까 곰곰히 생각해봤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막 갈아입으려는데,

“아버지 옷 갈아입지 마시고 어머니와 거실로 나오세요!”

아들이 예비군복으로 갈아입고선 전역신고를 드린단다.

“진군, 예비역병장 최돈식은 2007년 2월 13일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시다! 이에 신고합니다! 진군”

“그래, 아들도 고생했다!”

“자랑스럽고 고맙구나!”

우리 부부는 군대식 신고를 끝낸 아들을 교대로 가슴에 품어 안았다.

이어서 풍선과 “사랑하는 아들” “장하다” 종이 플랭카드가 매달려 있는 커튼을 배경으로 디카 사진 촬영.

아들은 이어서 우리 부부를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큰 절을 올렸다.

군대에 있을 때 아내는 경례를 받아 봤으면 했는데(아들은 군에 있을 때 축스럽다고 거수경례를 해준 적이 없었다), 전역하는 날 거수경례에 큰절까지!

“그래, 몸 건강하게 군복무 잘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구나!”

“엄마 소원도 풀어 주고, 거수경례 한번 받아 봤으면 했는데...”

아내는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잠시 후 식탁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고 아들이 먹고 싶었던 치킨은 이미 배달이 되어 와 있었다.

그날의 이벤트는 아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부부를 위한 이벤트였다.

아직도 거실엔 그날 이후 매달려 있는 풍선과 “사랑하는 우리아들” “장하다”라고 쓰여있는 종이 플랭카드가 커튼에 매달려 있다.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2월 한 달이 아들의 전역 축하 기간으로 풍선과 플랭카드를 철수할 수 없었다.

“아들아!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부모 맘도 헤아릴 줄 알고.”

“전역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아들아~” 